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능력



본문 출애굽기 7:1-13 예배 유튜브 QR / 주소

유튜브 <https://vo.la/eljpa71>



오늘의 한 문장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모든 위협을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위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능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럴싸하게 흉내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도 사탄은 이처럼 그럴싸한 세상의 힘을 과시하며 우리를 흔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뱀을 단숨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짓된 위협과 악의 세력을 어떻게 완전히 소멸시키실지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권력마저도 철저히 통치 아래 두시며, 세상의 눈에 초라한 노예 같은 우리를 향해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굳건하게 부르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의 뱀을 삼킨 이 놀라운 사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온전히 삼켜버리실 영광스러운 구속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세상이 돈, 질병, 사랑의 시선이라는 두려운 뱀들을 눈앞에 풀어놓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모든 위협을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굴복하여 숨죽여 사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제압하도록 파송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기

말씀 관찰

- 1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노인인 모세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까? (출 7:1)
- 2 애굽 요술사들이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위협할 때, 아론의 지팡이는 그들의 뱀을 어떻게 제압하니까? (출 7:12)

삶의 적용

- 1 현재 나의 삶에서 세상이 거대한 힘을 과시하며 내 눈앞에 뿌리를 틀고 위협하는 두려움의 ‘뱀(문제, 재정, 질병 등)’은 무엇입니까?
- 2 세상의 위협에 질려 위축되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밟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당히 서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온전히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당당한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